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1.1% 상승

유엔 식량농업기구 조사결과 135.7p, 설탕 제외 모든 품목 가격지수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제공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4.1포인트) 대비 1.1% 상승한 135.7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상승했으며, 그중 유지류와 유제품 지수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1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1년 12월(140.5포인트)보다 0.1% 상승한 140.6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12.5% 상승)했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반구에서 계속된 가뭄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쌀은 주요 공급국의 저조한 수확량과 아시아 국가들의 꾸준한 구매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밀은 계절상 수요와 아르헨티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178.5포인트)보다 4.2% 상승한 185.9포인트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33.8% 상승)했다. 팜유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량 축소 전망에 대한 우려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했다. 대두유는 인도 등에서 수입 수요가 많아 가격이 상승했다. 유채씨유 및 해바라기씨유는 각각 공급 부족 및 수입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의 경우, 전월(112.3포인트)보다 0.3% 상승한 112.6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17.3% 상승)했다.

쇠고기는 브라질과 오세아니아의 도축량 부족에 따라 수출 공급량 대비 수입 수요가 초과해 가격이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과 투입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 둔화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양고기와 가금육은 코로나19 관련 생산·운송 지연과 조류인플루

엔자 발생에 따른 주요 가금육 생산국의 공급 저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출 공급량이 수입 수요를 상회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의 경우, 전월(129.0포인트)에서 2.4% 상승한 132.1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18.7% 상승)했다.

이는 서유럽 주요국의 공급·재고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향후 수개월간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량 저조 전망,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노동력 부족에 따른 가공·운송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설탕의 경우, 전월(116.4포인트)에서 3.1% 하락한 112.8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19.7% 상승)했다. 설탕은 주요 수출국인 인도와 태국의 낙관적인 생산 전망과 순조로운 수확, 브라질 내 강수량 개선 및 에탄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

/최대희 기자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지난 4일 진안군의 한 농가를 찾아 농촌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전북농협 제공)

농가 집고치기 '구슬땀'

전북농협, 화재피해 입은 진안 농가 찾아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은 지난 4일 진안군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주거환경개선 NH해피하우스 제5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화재로 일부 주택이 소실된 진안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안전 점검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박병철 단장, 정미경 협회진안군지부장, 신용민 백운농협조합장을 비롯한 봉사단원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주방 싱크대 교체 등 주택수리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병철 단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농업·농촌, 지역 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농촌지역 독거노인, 장애인, 장, 조손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인 'NH해피하우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최대희 기자

1월 도내 소비자물가지수 104.69%p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전북 2022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21년=100)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6% 각각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동향으로는 상품은 전월 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3% 각각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1.4%,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했다. 공업제품도 전월 대비 0.1%

전년동월대비 4.6% 각각 상승했고, 전기·수도·가스는 전월대비 0.0% 포함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했다.

서비스 품목도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2.9% 각각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집세는 전월 대비 0.0% 포함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전월 대비 0.8%, 전년동월대비 2.0% 각각 상승했고, 개인서비스도 전월 대비 1.1%, 전년동월대비 3.7% 각각 상승했다.

또한 지출목적별 동향은 전월과 비

교해 기타상품 및 서비스(2.1%), 오락 및 문화(1.3%), 음식 및 숙박(1.1%) 부문 등은 상승했고, 교통(-0.4%) 부문은 하락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는 교통(7.7%), 음식 및 숙박(5.2%),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4.4%) 부문 등은 상승했고, 하락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체감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4% 각각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도 전월 대비 4.7%, 전년동월대비 3.1% 각각 상승해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상승은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희 기자

치유농업 발전 위해 현장과 '소통의 장'

농진청, 오늘부터 이틀간

진안서 연구회 현장 연수회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연구, 농업 현장 연계로 융복합 치유농업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과 가치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해 7과 8일 양일간 진안에서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를 연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최근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 개발과 연구 체계화, 전문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를 연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출발 이후 연구회는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치유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공감하고 자원의 융복합 활용 방향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협력 체계 구축과 가치 확산 방안 등을 현장과 함께 논의해 왔다.

이번 현장 연수회는 그동안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와 관련 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회가 2단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현장 연수회에서는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동물교감 치유와 융복합 치유농업 발전 방안 ▲삼리 치유자원으로 곤충의 활용 가능성과 전망 ▲다산에게 배우는 농촌 치유자원의 융복합 활용 지혜 등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주제 발표자와 자문단 등이 참여해 치유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농진청은 향후 치유농업 연구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쌓고 체계화해 현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관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장 현장과 농업 현장의 연계를 공고히 하고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어 치유농업이 지역,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이달 한달동안 정기예금 2022억원 판매

전북은행, '어흥 호랑이'

상호부금 특판'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오는 28일까지 '어흥 호랑이' 정기예금·상호부금 특판'을 실시한다.

정기예금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12개월, 18개월, 24개월 중 기간 선택 가능하며 판매한도는 2,022억원으로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금리는 최대 연 2.40%(우대금리 연 1.15%포함)로 고시금리에 기본우대금리 12개월 연 0.85%, 18개월 연 0.95%, 24개월 연 0.95% 뿐만 아니라, 마케팅 동의고객 연 0.10%, 예금 가입금액 1천만 원 이상 고객 연 0.10%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어흥 호랑이' 정기예금' 가입 고객은 '어흥 호랑이' 상호부금'에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기간은 12개월, 24개월로 금리는 최대 연 3.40%(우대금리 연 1.70%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오는 28일까지 '어흥 호랑이' 정기예금·상호부금 특판'을 실시한다.

포함)로 고시금리에 기본우대금리 12개월 연 1.60%, 24개월 연 1.70%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임인년을 맞아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특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하는 은행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도, 금융혁신 유니콘 기업 요람으로 | 벤처창업 지원 창업기업 모집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금융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핀테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개(사후관리 기업 2개사 포함) 기업에게는 미래기술혁신센터(전주 팔복동 소재) 내 창업 공간과 사업화 지원금(최대 4,000만원 이내)이 지원된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 및 1:1 멘토링 등 다채로운 역량강화 프

로그램으로 사업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워크숍 및 컨퍼런스를 통한 핀테크 기업 간 네트워크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핀테크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이하 창업기업, ▲선정일 이후 1개월 이내 본 사업장 도내 이직 또는 이사·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17일까지이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https://ceci.creativecore.ac.kr/jonb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으로 참여기업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기술혁신 아이디어 발굴, 도내 창업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으로 금융도시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전북도가 미래 금융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핀테크 양성의 요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aT, K-Food 수출기업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K-Food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aT BMS(Buyer Matching Service)를 통해 해외 바이어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4일 aT에 따르면 BMS란 수출업체 요청에 따라 품목별 국가별 바이어 정보를 매칭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국내 수출기업이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서 바이어 알선을 신청하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기업 DB와 해외 18개국 관세청 무역통관정보 등을 활용하여 선별된 바이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aT는 코로나19로 수출업체가 직접 해외 바이어 발굴이 어려운 여건에서, BMS 바이어 리스트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해 잠재 바이어를 확보하고 실제 수출로도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료 수출 기업인 M사는 BMS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 유명전문 바이어와 상담 이후 지난해 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카타르 바이어와도 계약을 위한 샘플 거래를 마쳤다.

M사 관계자는 "선심한 식품 바이어 정보를 받아 계약까지 이어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해외 영업 인력 1명을 채용하는 효과를 봤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외에도 신선과일 수출업체 D사는 신규로 싱가포르에 멜론을 약 16,000달러 수출했으며, 김치 소스 제조사인 I사는 미국 바이어와 수출을 협의하며 이를 위한 후속 수출 상담도 지원받고 있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출기업의 해외 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현지 바이어 정보 수집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BMS 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통한 바이어 정보제공이 상담과 계약까지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전북조달청, 도내 4개사 제품 '우수조달품' 지정

그린파이프 다중벽 허수관

한삼코리 수로형 저수조 등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21년도 제4회 우수조달물품심사'에서 도내 업체 주식회사 그린파이프 등 4개사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주식회사 그린파이프(대표 심미선)의 '결합력 향상 및 강성보강 다중벽 허수관' ▲(주)한삼코리(대표 조민수)의 '물 고임방지 수로형 STS라이닝 저수조' ▲주식회사 엠에이치소프트(대표 김민호)의 '유클래스 V.3.0' ▲주식회사 액시비스트(대표 정성훈)의 '영상카메라 속도측정 기술을 적용한 차방번호 판독시스템'이며 이에 현재 도내 우수조달물품은 총 35개사 47개 제품이 지정됐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 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 등 적극행정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도내 공공기관에도 지역 우수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미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바이오진지원, 2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지원)이 '전북형 미래혁신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북형 미래혁신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계획에 맞춰 미래혁신식품 개발을 위한 R&D, 시제품 개발 및 기술개발 지원과 더불어 향후 보급될 혁신식품이나 개발수준이 미흡한 제품군에 대해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전북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이오진지원에서는 미래혁신식품으로 HMR, 대체육, 메디푸드/연화식, 대체대용식, 클린라벨식품, 천연소재식품, 식이조절식품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망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나 연구비와 제품화 역량이 부족한 도내 식품제조 기업이 기술역량이 뛰어난 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제당 약 4,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진지원 김동수 원장은 "전북 농식품기업의 기술·제품개발로 품목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육 등 지원대위를 확대하여 트렌드의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혁신식품 산업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제신청은 이달 28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r.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